

출제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평가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가치와 의미라는 주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분석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내용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노동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구분하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기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이나 로봇, 4차 산업혁명 등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딥러닝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개념 비교적 최근에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논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지식보다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주제이다.

〈논제 I〉은 두 제시문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파악한 후, 제시문 간의 주요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됐다. 즉, 제시문 [가]는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에 지배되고 노동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 소외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노동은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 행위로 보며 따라서 노동은 특정 사회체제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논제 II〉는 인공지능의 확산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개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의 대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각각의 제시문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바]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디지털 휴머니즘’을 말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기준으로 로봇에 의해 사랑과 인간미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제시문 [다]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라]는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비관주의는 [바]와 대립되며, 낙관주의는 [바]와 유사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마]의 소설에서 ‘거인’은 독점적 산업사회, 기계화된 인공지능을 상징하고 ‘아이들’은 공존과 사랑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를 거인의 등장으로 공존과 사랑이 사라진 비관적 사회로 묘사하고 있어 제시문 [바]와는 대립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 출처]

[가] 정창우 외(2013),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p. 268.

[나] 손철성(2008), <역사를 움직이는 힘: 헤겔 & 마르크스>, 김영사, p. 106.

[다] 김대식(2014), <김대식의 빅퀘스천: 우리 시대의 31가지 위대한 질문>, 동아시아, pp. 301-303.

[라] 리처드 서스킨드·대니얼 서스킨드 지음, 위대선 옮김(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와이즈베리, pp. 390-391.

[마] 오스카 와일드 지음, 최애리 옮김(2015), 「저만 알던 거인」, <오스카 와일드, 아홉 가지 이야기>, 열린책들, pp. 35~37.

[바] 강시철(2016), <인공지능 네트워크와 슈퍼 비즈니스: 사물 인터넷, 그 다음 세상>, 리더스북, pp. 12-13.

예 시 답 안

<논제 I>

제시문 [가]와 [나]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제시문 [가]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와 기계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에 종속된 존재로서의 노동자는 노동 주체로서의 가치와 능동성이 없이 기계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도구로 철저히 이용당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된다. 반면 제시문 [나]는 인간이 자유로운 활동인 노동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며, 궁극적으로 꿈을 실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이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본질적인 행위로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원천이 된다.

위 제시문들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는 인간이 기계에 의해 지배되고 소외를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본가 계급이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자본주의에 있다고 본다. 반면 [나]는 노동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보편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자본주의, 봉건제와 같은 특정 사회형태가 아닌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626자)

〈논제 Ⅱ〉

제시문 [바]는 인공지능이 미래의 전 사회 영역에 광범위하게 실현됨으로써 기계(인공지능, 사물, 로봇)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적인 글이다. [바]는 알파고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시각을 부정한다. 대신 [바]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 또는 공생함으로써 디지털 휴머니즘을 구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로봇의 어원이 강제노동 또는 노예라고 말하고 인간을 위해 고안된 노예(로봇)가 오히려 인간을 정복함으로써 인간이 로봇의 노예가 되는 역설을 설명한다. 인간은 로봇으로 인해 삶이 훨씬 더 편해졌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사랑과 인간미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시문 [다]는 제시문 [바]가 제시하는 디지털 휴머니즘과는 반대되는 비인간적인 미래를 예상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산업영역에서 기계화의 진행이 고용(또는 실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비관주의적 시각과 낙관주의적 시각을 비교하고 있다. 비관주의는 노동총량이 같기 때문에 기계화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이 줄어들고 결국 고용도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낙관주의는 기계화가 일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할 것이지만 새로운 작업들을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의 비관주의적 시각은 제시문 [바]가 부정하는 시각이며 제시문 [라]의 낙관주의적 시각은 제시문 [바]가 긍정하는 시각이다.

제시문 [마]는 정원이라는 장소를 둘러싼 거인과 아이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우화이다. 거인은 거대한 산업사회, 기계화된 인공지능, 독점 자본주의 등을 상징하는 반면 아이들은 공존, 사랑, 배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상징한다. 여기서 공존과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추운 겨울의 정원이며 반대로 공존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상징한다. 제시문 [바]는 거인(인공지능, 기계화, 고도화된 산업사회)과 아이들(인간)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우화가 보여주는 풍경과는 대조적이다. (1028자)